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0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일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도청 앞 軍 집단발포 직전… 긴박했던 금남로의 5월

09:30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현 5·18기록관) 앞에서 구용상 광주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제와 질서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다 "집어치워라"는 야유를 받고 쫓겨났다.

10:02

시민들은 전날 밤 광주역에서 발견된 희생자 2명의 시신을 리어카에 옮겨 싣고 태극기로 덮은 다음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했다.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져온 군용트럭 등도 시위에 동원됐다.

10:40

금남로에 시위대가 5만여명으로 불어나 6차선 도로가 인파로 가득찼다. 캘리버50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한 계엄군의 장갑차(M113)가 시민군 앞에 배치됐다.

11:20

계엄군과 불과 50m 거리를 두고 대치한 시민군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후 1시가 되자 도청 옥상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공수부대는 일제히 집단발포를 시작했다.

사진= 최현배·김진수 기자 choi@kwangju.co.kr

1980년 5월 21일 오전 시민 눈으로 본 '5·18 영상' 첫 공개

5·18기록관, 광주시민 문제성씨 촬영 5분 40초 영상 복원

오전 9시 30분~12시 타임라인 구축에 도움 …소중한 기록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기 직전, 옛 전남도청 앞 긴박한 순간을 시민의 시각에서 본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계엄군의 5월21일 금남로 발포 직전까지 긴박한 현장이 필름에 고스란히 담겨 사진과 증언으로만 전해졌던 당시 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역사 자료로 평가된다.

계엄군의 시각에서 촬영 된데다 왜곡된 5·18 사진과 자료를 가려내고 선·후가 뒤섞인 각종 사진 자료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등 5월 역사복원에 큰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7일 시사회를 열고 광주 시민 문제성(70)씨가 1980년 5월 21일 당시 촬영한 광주시 금남로 일대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5·18기록관은 지난달 문씨로부터 필름을 기증받아 한국영상자료원에 복원을 의뢰하고, 정식 복원에 앞서 저화질로 간이 복원된 영상을 전달받았다.

영상은 5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12시께까지 광주 금남로 일대를 촬영한 5분 40여초 분량의 8㎜ 필름 영상이다. 광주시민들의 시위 행렬 중간쯤에 있던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 아치형 구조물(19회 전남체전·61회 전국체전 선수단 응원 구조물) 위에서 촬영됐다.

영상은 21일 오전 9시 30분께 구용상 광주시장(추정)이 시민들을 설득하려다 야유를 받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시민들이 아세아자동차에서 차륜형 장갑차를 끌고 와 시위 대열에 합류하자, 이를 막으려는 계엄군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 최루 가스 사이로 시민군 장갑차가 후진하는 장면도 보인다. 이 때 시민군 장갑차는 돌진 후 광주관광호텔 앞에 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오전 10시 20분께 두 대의 계엄군 캐터필러형 장갑차가 광주관광호텔 앞으로 전진 배치되고, 그 앞 50여m 간격을 두고 시민들이 대치하는 긴박한 순간도 영상에 잡혔다.

이 당시 배치된 장갑차(M113) 두 대 중 한 대에는 12.7㎜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었다는 사실이 광주일보 자료사진을 통해 확인〈광주일보 2022년 6월 23일 1면〉된 바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분석을 거쳐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각을 오전 10시 40분 전후로 추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2면으로 계속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도층 유권자 절반 이상 "이재명 지지"

광주일보 등 한신협 조사, 중도 응답자 53.3% 차지

김문수 후보 28.8%·이준석 후보 14.6%에 그쳐

대선 D-6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층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3·4·5면〉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표심이 이 후보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 지지율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27일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 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1062명)라고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의 이 후보 지지율은 김문수(28.8%)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14.6%) 개혁신당 후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중도층 응답률은 1.1%밖에 되지 않아 이번 선거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중도층의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층 응답자가 22.3%인데 반해, 중도(35.1%)와 보수(36.1%)는 상대적으로 표본이 많아, 중도층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43.4%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23.9%를 얻는 데 그쳤고 개혁신당도 1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도층이 전망하는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63.2%를 기록, 김문수(27.5%), 이준석(6.5%) 후보보다 월등한 수치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만큼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지만, 전체 응답자의 이 후보 당선 가능성(54.7%)보다 높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 ARS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다.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